2019. 7. 15 460호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상록수 울타리로 학교에 배기가스 유입 차단

사회·복지 "노동자 임금, 성별 이유로 차별화 금지"
市·지역 협력해 무료 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행재정·교육 시민참여예산 지원받는 프로젝트 41개 선정
저출산 등 사회변화 반영 지역복지지침 수립

환경·안전 건물·공간별로 폭염대책 설명한 안내서 배포

도시교통 맞춤형 교통전략 제공으로 승용차 이용률 낮춰
승차공유 등 新교통서비스, 택시수준 규제 예고

도시계획·주택 '슈퍼블록' 적용 확대로 주거환경·대기질 개선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암스테르담	장한빛
베를린	신희완
	유진경
	홍남명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하노버	이희재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뉴욕	윤규근
	이수진
	이정근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시애틀	강민규
시카고	김영준
	강기향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상파울루	김현아
스톡홀름	문선우
	허윤회
바르셀로나	진광선
	박정수
싱가포르	이은주
런던	정기성
비엔나	안병선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자카르타	박재현
도쿄	박재호
오사카	권용수
베이징	박성은
상하이	문혜정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김용훈
보르도	김준광
파리	김나래
시드니	정용문

상록수 울타리로 학교에 배기가스 유입 차단

대로변 학교대상 시범시행…학생참여 모니터링으로 수종 선정

영국 맨체스터市 / 환경·안전

영국 맨체스터市는 대로변에 위치한 학교에 자동차 배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이 그대로 유입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울타리를 철제펜스가 아닌 상록수로 만든 산울타리(hedge)로 세우는 방법을 연구 중임. 지역 대학 연구진과 협력하여 4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모바일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학생 참여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수종을 찾아낼 계획

배경

○ **대기오염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위험에 우려가 커지는 상황**

- 영국 왕립 의과대학(the Royal College of Physicians)에 따르면, 대기오염은 연 4만여 명의 노약자(아동 포함) 조기사망에 큰 영향을 미침
- 특히, 주요 대로변에 있는 학교의 학생 안전이 우려
  - 차량 충돌위험은 물론, 쉬지 않고 배출되는 매연 때문에 대기오염에 상시 노출
  - 대부분 학교가 기초적인 철제 울타리를 사용하고 있어 대로변의 차량 배기가스가 그대로 학교 건물과 운동장으로 유입되는 상황

○ **학교 운동장으로 유입되는 배기가스를 막기 위한 'Protecting Playgrounds' 프로젝트 시행**

- 맨체스터시 교통부가 랑카스터 대학교(Lancaster University) 환경과학 연구진과 협력해 준비했으며, 4개 학교에서 시범시행 예정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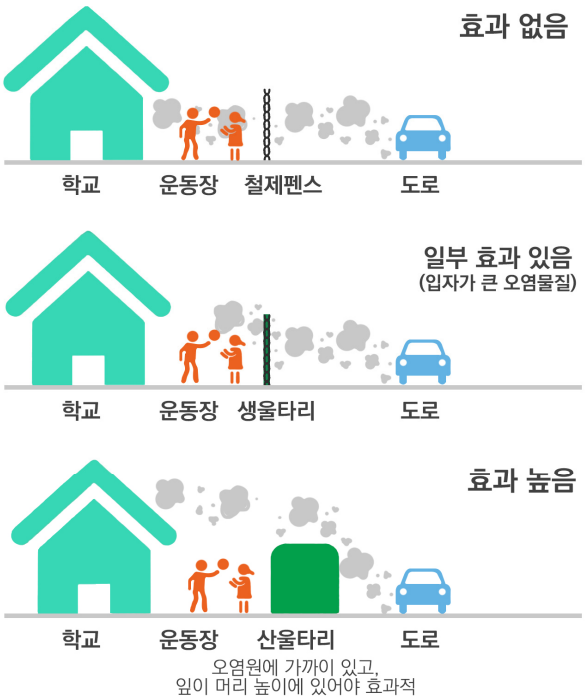
○ **상록수로 만든 산울타리를 설치해 대기오염 원인물질을 줄이려는 시도**

- 산울타리가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대기오염 원인물질을 흡수하는 자연 필터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시행

○ **다양한 산울타리를 4개의 학교에 시범적용하고, 가장 효과적인 모델을 판별**

- 밀도와 잎의 모양 등을 고려해 다양한 수종을 실험해보고, 학교 울타리로 적합하면서도 대기오염 정화능력이 우수한 종을 선택할 계획

- 올 여름부터 가을까지 실험을 진행하며 운동장과 교실의 대기질을 측정하여 대기 오염 감소 효과를 관찰



[그림 1] Protecting Playgrounds 프로젝트 개념 이미지

○ 시민·학생이 참여해 프로젝트 성공을 도움

- 시범시행 대상 학교의 학생은 샘플 모니터링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을 도움
  - 모니터링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모바일 웨어러블 장치를 착용하고 등하교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더 깨끗한 등하교 경로를 파악
- 시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기오염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알리는 캠페인 진행

○ 최종 결과 보고서는 2019년 하반기에 나올 예정

https://secure.manchester.gov.uk/news/article/8185/pioneering_clean_air_scheme_will_protect_playgrounds_from_pollution_in_manchester

https://www.crowdfunder.co.uk/protecting-playgrounds

https://cleanairgm.com/news/protect-playgrounds

정 기 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노동자 임금, 성별 이유로 차별화 금지”

미국 하와이州 / 사회·복지

미국 하와이州는 남녀 노동자의 임금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위원회 주도로 여러 법안을 제정·시행 중임. 남녀 임금평등을 법제화하는 한편, 올 1월부터는 여성 노동자가 과거에 낮은 임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하는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을 막는 법안을 발표했으며, 임신·출산 이후 여성소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휴가의 유급화 방안도 추진 중

배경

○ **하와이주의 성별 임금격차는 1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는 낮은 편이지만 개선 필요**

- 최근 미국 여성대학 협회(The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가 공개한 보고서에서 하와이주 성별 임금격차는 17% 수준으로 조사
  -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를 포함한 조사 결과, 성별 임금격차가 적은 상위 10번째 지역에 선정
- 같은 시간의 노동에 남성 노동자 1인이 1달러(1,200원)를 받을 때, 여성 노동자는 0.83달러(1,000원)를 받는 것으로 조사
  - 여성 노동자가 남성 노동자와 같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평균 3개월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
- 성별 임금격차는 유색인종 여성일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여성정책연구소(The Institute for Women's Policy)의 조사결과, 백인 노동자가 1달러를 벌 동안 아프리카·아시아계 미국인 여성 노동자는 0.73달러(880원)를, 라틴계 미국인 여성 노동자는 0.67달러(800원)를 버는 것으로 확인
- 2058년 남녀 임금평등 실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
  - 여성정책연구소는 위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남녀 간, 인종 간의 임금격차는 하와이주의 전 직업군에서 확인되었다고 밝힘
  - 또한, 이 추세대로라면 오는 2058년까지 남녀 임금평등을 실현하겠다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

○ **주정부 여성위원회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적극 노력할 것을 공식성명으로 발표**

- 특히, 여성의 임신·출산 이후에 성별 임금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는 모든 여성이 잠재적으로 직장과 사회에서 평등을 상실하게 될 위기라고 진단

- 임신·출산을 거친 여성은 기존의 직장 대신 보육교사 등 비교적 저임금으로 알려진 분야로 전직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알려짐

• 또한, 여성의 소득문제는 곧 자녀의 교육·의료 문제와 직결된다고 평가
  -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하와이 가정의 절반 정도가 여성 1명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1]는 조사 결과에 근거

○ **여성위원회, 조직 내에서 성별 임금격차를 용인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

• 같은 시간 동안 동일한 노동을 한 남성보다 여성의 임금을 적게 주는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의 필요성 확인
  - 특히, 여성 노동자가 과거의 직장에서 받았던 임금이 적다는 이유로 새 직장에서도 남성보다 적은 수준의 임금을 산정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방침

주요 내용

○ **주의회는 구직 여성의 급여 비밀주의를 훼손하는 예비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을 제정**

• 여성 노동자는 구직 행위 시 수반되는 면접 등의 과정에서 예비 고용주·사용자·인사 담당자 등이 과거 임금 내역을 묻거나, 공개하거나, 공식적으로 사내에서 논의하는 등 일체의 급여 비밀주의를 훼손했을 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올 1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효된 상태
  - 간접고용(대행, 파견 등) 노동자를 채용할 때도 적용

○ **노동자 채용 시의 임금 산정 기준은 과거 임금이 아닌 해당 노동자의 희망 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을 법적으로 명시한 첫 사례**

• 만약 해당 여성 노동자가 고용주의 과거 임금 내역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보복·차별 등의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의 고용주에게 고발·고소 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

○ **자발적 공개는 예외이며, 급여 외의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

• 여성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과거 임금 내역을 공개한 때는 고용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음
• 업무상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 학위·학력 등 급여 외의 관련 정보 공개 요구는 고용주와 근로자 사인 간의 문제이므로, 이 법과 관련이 없음을 명시

1) 여성 1인이 유일한 소득원인 가족 또는 해당 여성 1인의 월수입이 가구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구

○ **동등한 기술·노동력·책임감이 요구되는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성별을 이유로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

- 단, 연공서열, 성과급, 결과물의 양 또는 품질에 따른 평가, 실질적 업무능력(BFOQ: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또는 성별이 아닌 다른 인정할 수 있는 요인에 따른 임금의 차이는 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규정

○ **여성노동자의 출산 전후 경력단절을 예방하려고 출산휴가의 유급화 방안을 추진 중**

- 주의회는 여성노동자를 포함한 배우자·동거 직계가족의 출산휴가도 모두 유급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

https://www.capitol.hawaii.gov/session2018/bills/SB2351_CD1_.pdf

https://www.capitol.hawaii.gov/Archives/measure_indiv_Archives.aspx?billtype=SB&billnumber=2351&year=2018

https://www.capitol.hawaii.gov/privacy.aspx

http://statusofwomendata.org/wp-content/uploads/2018/02/R479_Status_of_Women_in_Hawaii_11-17_reader-spreads-final.pdf

https://www.bizjournals.com/pacific/news/2018/04/10/hawaii-ranks-10th-nationally-in-gender-pay-equity.html

https://www.capitol.hawaii.gov/session2018/bills/SB2351_HD1_.HTM

임 지 연 통신원, reah617@naver.com

市·지역 협력해 무료 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캐나다 에드먼턴市 / 사회·복지

총 700여 개의 시 소유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 에드먼턴市는 우리나라의 동 단위 규모의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학교·시가 함께 협력해 각종 무료 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주로 방학기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놀이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물놀이 공원·실내 놀이공원 등도 운영해 놀이터가 지역 어린이들의 놀이와 화합의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함

배경

○ **에드먼턴시는 아동친화적 도시 만들기에 노력**

- 시정부는 유니세프(Unicef)의 아동친화도시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아동친화적 도시계획을 추진 중
  -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아동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동 생활공간 개선·공급에 역량을 집중
- 시 전체 인구 75만 명 중 15만 명이 18세 이하

○ **어린이 놀이터의 운영·관리에 지속 관심, 지역사회와 협력해 무료 프로그램 제공**

- 시정부는 어린이 놀이터 700여 개를 운영 중이며, 이 중 150여 개는 '접근성 강화 놀이터'(Accessible Playgrounds)
  - 캐나다의 놀이 공간·장비 기술표준(CAN/CSA-Z614)에 따른 접근성 강화 설계를 적용하여 특히 장애인 아동의 놀이터 접근성을 높인 놀이터
- 우리나라의 동 단위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학교·시가 협력하여 다양한 놀이터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
  - 학령기 아동의 방학기간을 위주로 시의 보조금과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운영

주요 프로그램

○ **초록 오두막 프로그램**(Green Shack Program)

- 대표적인 지역 놀이터 프로그램으로,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7월부터 2개월간 주중 매일 게임·스포츠·음악·미술 등의 이벤트를 열어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
  - 1950년 이후 현재까지 초록 오두막 프로그램은 에드먼턴시와 주정부, 지역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 어린이들의 방학기간을 위주로 운영하며, 여름에는 본 프로그램을, 겨울과 봄에는 한시적 계절 프로그램을 운영
- 놀이터에 녹색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해 상시로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에 필요한 기기를 관리
- 시정부가 단기로 관리·감독 직원을 고용하고, 안전교육과 프로그램 교육을 제공
  - 2010년 주정부 지원금 삭감으로 축소 운영된 적도 있지만, 시정부와 100여 개 지역 단체가 누락된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
  - 이후, 지역 모금활동과 고교·대학생 등의 자원봉사 등에 힘입어 지역사회 기여도가 올라가 2013년에는 프로그램 이용자가 25만 명에 이름

[그림 1] 초록 오두막과 놀이터 전경

○ 팝업 플레이(Pop-up Play)

- 놀이 프로그램을 표시하는 팝업 광고를 마을 공원에 설치하고, 7~8월 중 1주일에 이틀 동안 놀이프로그램을 진행
  - 녹색 오두막 프로그램과 대상(6~12세 아동), 프로그램 내용은 비슷하지만, 적절한 놀이터나 지역 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주로 열린다는 점이 차이

○ 물놀이 공원(Spray Park)

- 일부 놀이터 주변에 있으며, 봄·여름철(5~9월)에 한정 운영하는 물놀이 공원
- 수영장 규모가 아닌 다양한 분수놀이 시설로, 현재 100여 개를 운영 중

○ 실내 놀이공원(Indoor Playground)

- 한국의 키즈 카페와 유사한 형태의 실내 놀이공원으로, 2~3층 규모에 미끄럼·구름사다리·암벽타기 등의 시설을 제공
- 시 전체에서 7개를 운영 중이며 주로 야외 활동이 부족한 겨울철에 빈번하게 이용

○ **청소년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Leaders in Training)

- 청소년에게 지역의 어린이와 함께 지내며 지도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며, 학교 제출용 자원봉사 시간도 인정해주는 프로그램
- 시가 마련한 자원봉사 소양 교육에 참석해야 하며, 7월 또는 8월에 최소 2주간 자원봉사를 해야 함
- 청소년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의 자원봉사 종류
  - 놀이터 프로그램: 어린이 대상 여름 놀이터 프로그램 운영을 돕는 일로, 시에서 파견된 레크리에이션 지도자와 주민 자원봉사자를 지원
  - 지역 내 유료 방학 프로그램: 지역 또는 시 관련 시설에서 스포츠·드라마·과학 등의 주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 3~12세 어린이들을 보호·감독하는 역할을 1주일간 수행
  - 주니어 도시 농부: 시립 동물원에서 우리를 청소하고 먹이를 주는 일

https://www.edmonton.ca/activities_parks_recreation/green-shacks.aspx
https://www.edmonton.ca/activities_parks_recreation/playgrounds-sprayparks.aspx
https://www.edmonton.ca/programs_services/for_children_kids_youth/leaders-in-training.aspx
https://data.edmonton.ca/Outdoor-Recreation/Playgrounds-Map-View/c4nr-3quz
https://globalnews.ca/news/1446764/edmonton-wont-let-budget-cuts-slow-green-shack-program/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시민참여예산 지원받는 프로젝트 41개 선정

프랑스 보르도市 / 행재정·교육

프랑스 보르도市는 올 2월부터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시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음. 트렌드에 맞는 인터넷·앱 참여홍보에 힘입어 총 407개의 프로젝트가 접수되었으며, 시는 이 중 41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현실화를 추진 중

개요

○ **시민의 행정참여 촉진을 위해 올 2월부터 시민참여예산[1] 도입 결정**

- 참가 자격: 나이와 국적에 관계없이 보르도 거주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주제: 지속가능한 개발[2]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나 아이디어
- 목표 예산: 250만 유로(32억 5천만 원)

○ **시민참여예산에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위치: 반드시 보르도시 내에서 행해지는 로컬 프로젝트일 것
- 공익성: 공공을 위한 프로젝트이면서 시민의 무료이용이 가능할 것
- 보르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일 것
- 보르도의 경제, 녹지공간, 도시계획, 교육, 치안, 문화, 체육, 사회 복지 분야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일 것
-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보르도 광역시의 주요 프로젝트와 부합되는 프로젝트일 것
- 2년 내로 실현이 가능한 프로젝트여야 하며, 투자 비용을 명시할 것
- 이웃 간의 분쟁 소지가 없을 것(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공해 등을 원인으로 한 분쟁)
- 참가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닌 것

○ **시민투표에서 많은 표를 얻은 프로젝트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득표순서로 선정하되,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모두 지원
- 올해는 총 41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으며, 2년 내로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 중

1) 1989년 브라질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로, 시민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여 현실화하는 제도
2) 지속가능한 발전 또는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인 성장 목표를 이유로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경제성장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들의 집합

추진 과정

○ 2월: 뜻있는 시민이 주제에 맞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연구

- 앞서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해당 웹사이트에 업로드

○ 3~4월: 담당 부서가 모든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검증

- 제안 프로젝트와 관련성이 높은 시청부서가 제안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인터뷰를 수행
- 실효성이 있는 프로젝트와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로 나누어 리스트를 작성하고, 시의원과 8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시민투표에 올릴 최종 프로젝트를 선정
  - 올해 총 407개 프로젝트가 제출되었으며, 134개 작품이 실효성을 검증받아 시민투표 대상으로 올라옴

○ 5월 1~31일: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시민투표 진행

- 시민들이 선호도 순으로 3개의 프로젝트에 투표

○ 6월 14일 41개의 당선작을 발표하고, 7월부터 프로젝트 현실화를 시작

- 프로젝트별 성격에 따라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하고, 제작·설치가 필요한 오브제나 조형물은 상세 설계작업을 시작
- 2년간의 현실화 진행 과정을 웹사이트에서 열람 가능

주요 사례

○ 바다로 흘러가는 쓰레기 줄이기

- 해양쓰레기의 80%는 도시의 하수구에서 출발함에 착안한 프로젝트
- 도로변·인도 등에 주로 설치된 하수구·배수구 덮개에 경각심을 주는 문구를 설치
- 문구는 “바다는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다에 아무것도 버리지 마세요.”
- 예산은 총 5천 유로(650만 원)

[그림 1] 하수구 덮개에 문구를 설치하는 모습

○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사회성장과 공공이익을 지향하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실현 중**

- 공공기관 지붕에 벌집 설치하기
  - 벌꿀을 채취하기 위한 양봉이 아닌, 그저 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벌통을 만들어 주고 그대로 살도록 두는 것이 목적인 프로젝트로, 예산은 1천 유로(130만 원)
- 건물 지붕이나 틈새 공간 등 도심 내 유휴공간에 온실 만들기(예산 5천 유로)
- 모기 퇴치를 위해 천적인 박쥐집을 만들어 주기(예산 1천 유로(130만 원))
- 도심 곳곳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예산 45,000유로(5,850만 원))

시사점

○ **공모전·시민투표 형식 도입과 트렌드에 맞는 홍보로 참여도를 증폭**

- 시민참여예산은 이미 국내 지자체에서도 활용 중인 제도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지도가 높은 편이 아님
- 공모전과 시민투표의 형식을 도입하고, 인터넷·앱을 활용하여 참여율을 높임
- 2년이라는 실현 기간을 두어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은 프로젝트를 선정할 수 있었음
- 세계적 이슈인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하여 시민이 환경을 생각하며 생활습관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

http://www.bordeaux.fr

https://budgetparticipatif.bordeaux.fr/

https://www.20minutes.fr/bordeaux/2540435-20190615-bordeaux-arbres-composteurs-budget-participatif-habitants-vote-ecolo

https://www.sudouest.fr/2019/05/17/pour-quel-projet-allez-vous-voter-pour-le-budget-participatif-de-bordeaux-6089203-2780.php

https://rue89bordeaux.com/2019/06/budget-participatif-3-bordeaux-va-realiser-41-projets-elus/

https://fr.wikipedia.org/wiki/Budget_participatif

김 준 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

저출산 등 사회변화 반영 지역복지지침 수립

일본 교토市 / 행재정·교육

일본 교토市는 저출산·고령화, 가족형태 변화, 고용형태 변화 등 지역복지를 둘러싼 과제가 복잡·다양해지는 현실에 맞추어 지역의 '발견, 연결, 지원' 역량 향상과 관련 행정·지원기관 간의 분야 횡단적인 지원체계 강화를 목표로 한 '교토·지역복지추진지침'을 새롭게 수립

배경

○ **교토시 전체 인구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음**

- 세대 수는 증가하고 세대 규모는 축소하는 경향
- 15세 미만과 15~64세 인구 비율은 감소하는 한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증가가 이어지면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증가
- 시의 생활 보호율은 감소 경향에 있지만, 전국에 견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고용자 수도 매년 증가
- 아동·고령자 학대 상담 건수와 인정 건수가 증가
- 신체장애인수첩 교부 건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치료교육 및 정신장애인보건복지수첩 교부 건수는 증가

○ **시정부는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2019년 3월 새로운 지역복지추진지침을 마련**

- 2014년 '교토·지역복지추진지침'을 수립해 다정함이 넘치는 마을 만들기에 힘써 왔으며, 5년이 지난 2019년 3월 관련 전문분과회의의 논의를 거쳐 개정

교토·지역복지추진지침의 개요

○ **지침의 기본이념은 교토의 지역 역량을 살려 다정함이 넘치는 공생 문화를 추진하는 것**

○ **기본이념 달성을 위한 주요 목표로 ① 지역의 '발견, 연결, 지원' 역량 향상, ② 행정·지원 관계기관 간 분야 횡단적인 지원체계 강화를 설정**

- ① '지역의 '발견, 연결, 지원' 역량 향상'에서는 (i) 주민끼리 지원하는 활동 촉진, (ii) 다양한 활동 단체가 연계해 주민과 함께 협동대책을 추진하는 체계 만들기를 계획
  - (i)의 측면에서는 서로를 보고 인식하는 지역 만들기 촉진, 지역복지 활동에 시민 참여 촉진, 건강 만들기·요양예방 대책 시행, 지역의 육아지원 등을 추진

- 또한, 지역 특성에 따른 상호 지원 활동 창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대책과 연계, 감시·상담 지원 활동 촉진, 거처 대책 추진, 화재 시 배려가 필요한 사람의 지원 강화 등을 계획
- (ii)의 측면에서는 구(区)지역복지추진위원회 대책 강화, 사회복지시설과 협동을 기반으로 한 지역 만들기 추진, 복지 분야를 넘어 지역기업이나 대학 등 다양한 주체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 추진을 상정

• ② '행정·지원 관계기관 간 분야 횡단적인 지원체계 강화를 설정'에서는 곤란한 문제에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행정기관 등의 체계 내실화를 계획
- 구체적으로, 지역의 역량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적 과제에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행정·관계기관 등의 지원 조정체계를 강화해, 지역 안전지원에 관한 설치사업이나 불량생활환경대책 조례 등 지역생활문제 대응 사업의 내실화를 상정

○ **추진기간은 5년으로 계획했지만, 도중에 지역복지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바로 재검토할 예정**

https://www.city.kyoto.lg.jp/hokenfukushi/page/0000250980.html

https://www.city.kyoto.lg.jp/hokenfukushi/cmsfiles/contents/0000250/250980/sisinnhonnbunn.pdf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건물·공간별로 폭염대책 설명한 안내서 배포

일본 도쿄都 / 환경·안전

일본 도쿄都는 지구온난화와 도시화에 따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나 수면장애를 겪는 도민이 증가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열을 발생시키지 않고, 축적하지 않고, 받게 하지 않는다는 3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한 폭염대책을 마련함. 또한, 도시의 건물과 공간이 다양한 만큼 이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도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건물·공간별로 적용방법을 설명한 안내서를 제작·배포

배경

○ **온열질환자와 수면장애 등을 겪는 시민 증가로 효과적인 폭염대책이 필요**

- 폭염이나 열대야에 따른 온열질환자가 증가하고, 수면장애 등 삶의 질 저하가 심화하면서 폭염이 주요 과제로 인식
  - 또한,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더 효과적인 폭염대책이 요구
- 지난 100년간 세계 평균기온은 약 0.7℃, 일본의 평균기온은 약 1.2℃ 상승한 데 비해 도쿄의 평균기온은 무려 3℃가량 상승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지구온난화와 도시화에 따른 열섬 현상이 있었음
- 이에 따라, 도쿄도는 일반인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한 사람에게 폭염대책을 알기 쉽게 전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름 폭염대책 안내서'를 작성

폭염대책

○ **도시화에 따른 폭염의 원인과 영향**

- 그 원인은 크게 공조기기나 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열과 건물·지면 등에 축적되는 열로 정리할 수 있음
- 사람이 햇볕에 더해 이처럼 도시에서 발생·축적되는 열을 받게 되면, 온열질환과 수면장애 등의 원인으로 작용

○ **도시의 폭염을 완화하는 대책의 주요 원칙 3가지**

- 1) 에너지 사용을 억제해 열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
- 2) 식물이나 물을 이용한 대응 기술로 건물표면이나 지면을 개선해 열이 '축적되지 않게 하는 것'
- 3) 이에 더해 그늘막이나 미스트 분무 등을 이용해 사람이 열을 '받지 않게 하는 것'

- 위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폭염 시에 사람이 받는 영향을 줄이고 여름에도 편히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실현하고자 함

○ **3가지 원칙별 주요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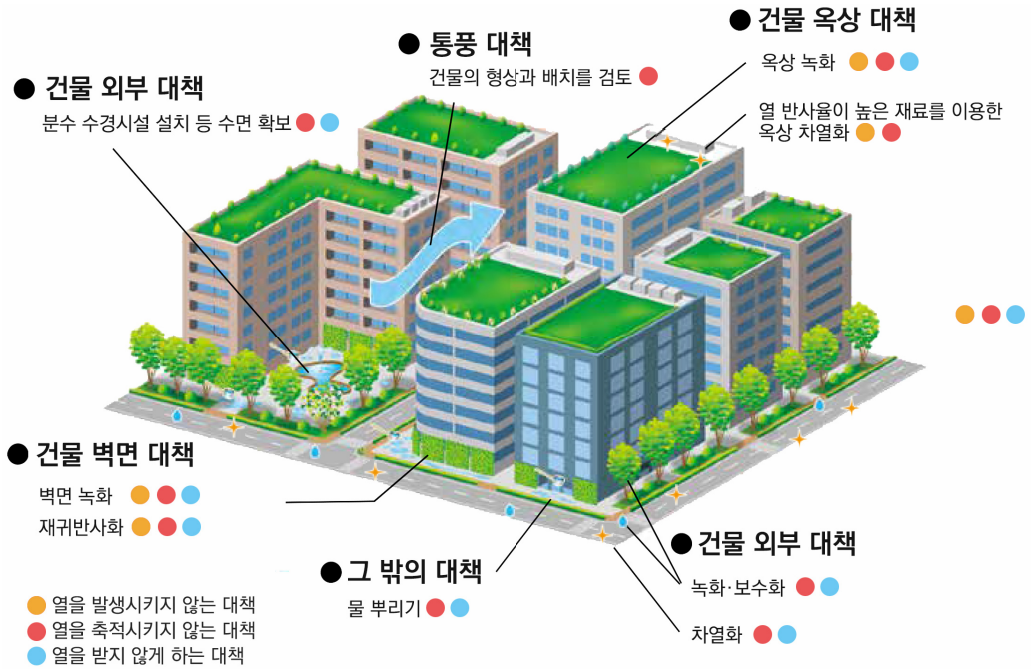
- 열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에 관한 대책
  - 고효율 공조기기나 저연비·차세대 자동차 이용 등 에너지 절약을 바탕으로 한 열 배출 저감
  - 건물의 단열·차열화, 옥상·벽면녹화, 창가 그늘막, 재귀반사화 등을 이용한 냉방 부담 줄이기
- 열이 축적되지 않게 하는 것에 관한 대책
  - 식물이나 물을 이용하는 대책이 효과적이며, 구체적으로는 건물의 차열·단열화, 옥상·벽면녹화, 노면 차열화·보수(保水)화, 그늘막, 물 분사 등
- 열을 받지 않게 하는 것에 관한 대책
  - 건물의 옥상·벽면녹화와 재귀반사화, 그늘막 등을 활용한 햇볕 차단, 가로수 등 지표면 녹화, 측면 냉각, 미스트 분무 등을 이용해 주변의 온도를 낮춤

○ **폭염대책에 따른 체감온도 감소 효과**

- 체감온도 감소 효과는 그늘막이 5~7℃인데, 여기에 보수화나 물 분사를 더하면 1℃, 측면 냉각은 1~2℃, 미스트 분무기로는 1℃의 추가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음

○ **건물·공간별로 최적의 폭염 대책을 정리하여 소개한 안내서 발간**

- 도시의 기온상승을 억제하고 사람이 느끼는 무더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건물과 공간에 알맞은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기반
  - 도시에는 사무용·상업용 빌딩, 주택, 공원, 도로 등 다양한 건물과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
  - 또한, 도민·사업자·행정 등의 각 주체 간의 연계도 중요함을 강조
- 안내서는 빌딩, 집합주택, 단독주택, 창고·공장 등 개별 건물 관련 대책과 공원, 광장, 도로, 야외 행사장과 같은 개별 공간 관련 대책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소개
- 가령, 열을 방출하는 건물과 열이 축적되기 쉬운 건물이 밀집된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
  - 옥상녹화, 건물 차열화 등으로 건물 표면에 열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
  - 건물 단열 강화와 에너지 절약기술 도입으로 열 배출 감소
  - 지역의 녹화와 도로의 보수화 등을 바탕으로 쾌적성 향상
  - 건물 설계 시 통풍을 확보할 수 있는 형상과 배치를 적용
  - 길거리 물 뿌리기 등 방문자를 포함해 마을 전체가 함께 실행할 수 있는 대책 마련



[그림 1] 도쿄도 폭염대책 안내서 예시

http://www.kankyo.metro.tokyo.jp/climate/heat_island/tebiki.files/atsusa_tebiki_h30kaitei.pdf

http://www.kankyo.metro.tokyo.jp/climate/heat_island/tebiki.html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맞춤형 교통전략 제공으로 승용차 이용률 낮춰

미국 오스틴市 / 도시교통

미국 오스틴市는 자가용 외에도 공유 자전거·자동차 등 많은 대체 교통수단이 등장하였지만, 관성적으로 기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교통수단 이용전략을 제시하는 '스마트 트립 오스틴' 프로그램을 도입함. 2015년 시범 도입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중인 이 프로그램은 2017년까지 6만 가구가 참여하는 등 승용차 이용률 저감에 이바지

배경

○ **자동차 대체 교통수단은 늘었지만, 많은 시민이 기존 교통수단을 이용**

- 오스틴시는 미국 내에서도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
- 최근 버스·기차 등의 대중교통 외에도 자전거, 공유 자동차·자전거·킥보드, 카풀과 같은 다양한 대체 교통수단이 등장
- 하지만, 인식 저조로 많은 시민이 기존의 교통수단만을 이용하는 실정

○ **시민에게 대체 교통수단의 존재를 알리고 이용을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시작**

- '스마트 트립 오스틴' 프로그램으로, 2015년 북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중
  - 2015년 노스 오스틴(North Austin), 2016년 센트럴 오스틴(Central Austin), 2017년 센트럴 사우스 오스틴(Central South Austin), 2018년 센트럴 이스트 오스틴(Central East Austin), 2019년 이스트 오스틴(East Austin) 순
  - 2015~2017년 약 6만 가구가 프로그램에 참여

주요 내용

○ **자동차 외에도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음을 알리고, 전환을 적극 유도**

- 대체 교통수단의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로 교통수단을 바꿔볼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심리적 장벽을 제거
- 아울러, 도시 전체의 교통체증 저감과 교통환경 개선을 이끌어 시민의 교통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독려

○ **대상 지역 주민의 교통수단 이용패턴을 조사하여 적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안**

- 간단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로 개인의 교통수단 이용 패턴을 입력하면, 관련 툴킷(Toolkit)을 제공
  - 툴킷은 관련 지도, 법규, 무료 이용권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메일로 제공
  - 관련 지도에는 이동 시간, 경로, 주의점 등도 표기
- 스페인어 사용자를 위한 스페인어 정보도 제공

○ **스마트 트립 홍보대사를 고용하여, 개인 맞춤형 교통수단 이용전략을 제공**

- 홍보대사는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지역 주민을 일대일로 만나 개인 맞춤형 교통전략을 제시
  - 해당 주민이 어디에 가고 싶은지, 어떤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한 후 맞춤형 교통수단 이용 계획·경로를 제안
- 또한, 홍보대사는 지역의 단체와 협력하여 이벤트 등을 개최

○ **새로운 교통수단을 이용해 볼 수 있는 이벤트 개최**

-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의 심리적 장벽을 줄이는 다양한 이벤트 개최
  - 2019년 프로그램 론칭 이벤트로 버스를 타고 아프리칸·아메리칸 북 페스티벌(African American Book Festival)에 가보는 '트랜싯 어드벤처'(Transit Adventure) 이벤트를 개최
  - 버스 하루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하여 버스 이용을 독려
- 2019년 7월에는 반려견과 함께 다니기 좋은 길을 소개하는 이벤트(Smart Stroll Dog Days of Summer Walk)를 개최할 예정
- 기타 워킹 투어(Walking Tour), 자전거 교육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이벤트 개최

○ **SNS를 이용한 관련 정보 공유**

-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SNS로 실시간 관련 정보, 법규, 우수사례 등을 공유

https://smarttripsaustin.org

https://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About_Austin_Smart_Trips.pdf

https://www.austintexas.gov/news/smart-trips-austin-launches-new-area-offers-transportation-solutions-all

https://cbsaustin.com/news/local/austin-named-one-of-the-most-traffic-congested-city-in-the-world

https://www.facebook.com/SmartTripsAustin/

https://twitter.com/smarttripsatx?lang=en

이 경 선 통신원, kyungsunlee14@gmail.com

승차공유 등 新교통서비스, 택시수준 규제 예고

싱가포르 / 도시교통

싱가포르는 최근 IT기술 발전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 중인 점대점(Point to Point) 방식의 새로운 교통서비스(승차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규제 필요성을 묻는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존 택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확인하였음. 이에 따라, 새로운 점대점 교통서비스의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기존 택시업계와 상생이 가능한 포괄적인 새로운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

개요

○ 기술 발전에 힘입어 점대점 교통서비스의 수요·서비스 모두 성장세

- 점대점 교통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출발지와 목적지를 선택해 이용하는 교통서비스로, 대중교통 대비 편의성·신속성이 좋은 장점
- 최근 IT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점대점 교통서비스가 등장
  - 택시(Taxi), 개인 렌터카(Private Hire Car), 승차공유 서비스(Ride-Hailing), 렌터카 예약교환 서비스(Private Hire Car Booking Service Operator), 카풀 서비스(Rideshare) 등
- 기존 교통 서비스의 불만과 한계점이 점대점 교통서비스의 다양한 수요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끌고 있음

[그림 1] 싱가포르의 대표적 승차공유 서비스 그랩

주요 내용

○ **도입 6년째인 신규 점대점 교통서비스는 아무런 제재 없이 운영 중**

- IT기술을 이용한 점대점 교통서비스는 운수회사라기보다 기술회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도입 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어떠한 규제·제재도 받지 않고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는 실정

○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은 승차공유서비스 등의 규제 필요성 설문조사 시행**

- 이와 같은 문제를 인지한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은 최근 승차공유 서비스 등 신규 점대점 교통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규제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
  - 2019년 1월 24일부터 2월 21일까지 조사하고, 지난 6월 28일 총 86개의 제안사항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

○ **승차공유 서비스에 기존 택시와 같은 수준의 규제 적용 등 주요 제안사항 발표**

-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신규 교통서비스 업체의 최저가 정책 규제
- 피크 시간대 할증 요금 부과 정책 규제
- 기존 택시의 전화 예약 방식 폐지
- 모든 점대점 교통서비스에 어린이 카시트 제공 의무화
- 카풀 서비스 운영 업체에 면허 발급 고려
- 승차공유 서비스와 택시에 동등한 규제 적용
- 승차공유 서비스 차량 내구연한 지정, 운전자 최소 연령 만 30세 이상으로 제한

○ **신규 점대점 교통서비스 이용자는 크게 '새로운 교통규제'와 '안전'을 요구**

- 이용자들이 새로운 점대점 교통서비스, 특히 승차공유 서비스에 원하는 항목은 크게 '새로운 교통규제'와 '교통안전'의 2가지로 분류

○ **택시와 마찬가지로 승차공유 서비스 등 새로운 교통서비스에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

- 기존 택시 서비스에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정을 마련하고 규제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점대점 교통서비스에도 적절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또한, 이용자들은 이러한 규제를 모든 점대점 교통서비스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각 서비스의 수준과 형태에 따라 맞춤식으로 도입해야 하며, 택시 규제와 차별성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
- 새로운 규제는 기존의 규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면서도 세부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

○ **신규 교통서비스 도입 이후 교통사고 건수 증가에 따라 안전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

- 최근 싱가포르의 교통관련 보험사의 자료에 따르면, 승차공유 서비스의 본격적인 도입 이후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
- 육상교통청은 새로운 점대점 교통서비스를 규제하는 방향이 아닌, 기존 서비스와 조화를 바탕으로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할 예정
- 최종 목적은 신규 점대점 교통서비스의 적절한 규제를 바탕으로 기존 택시업계와 상생을 강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transport/lta-receives-86-suggestions-on-how-to-regulate-taxi-private-hire-operator

https://www.lta.gov.sg/data/apps/news/press/2019/20190127_P2P_Glossary.pdf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transport/views-divided-on-call-bookings-and-surge-pricing-says-lta

이 은 주 통신원, jelia1130@gmail.com

‘슈퍼블록’ 적용확대로 주거환경·대기질 개선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 도시계획·주택

스페인 바르셀로나市는 지난 2016년부터 블록 간 병합으로 차량 통행량을 줄이고 공공공간을 확대하는 ‘슈퍼블록’ 계획을 시범적용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공공공간의 질과 양을 향상하여 걷기 좋고 살기 편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

배경

○ 심화되는 환경문제 개선과 낙후지역 도시재생사업 필요성 증가

- 2014년 바르셀로나시와 인근 35개 지방(Municipio)은 유럽연합이 제시한 탄소배출량 절감 등 개선목표 달성에 실패
  - 시정부는 대기질 개선을 시민건강과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문제로 해석
- 포블레노우(Poblenou) 지역 등 성장동력을 상실한 구산업지대 재생 필요성 증가

○ 서로 다른 문제의 동시해결을 위한 통합적 도시계획 방법론: ‘슈퍼블록’[1) 2)]

- 도시개발 편의를 위해 블록 크기를 거대화했던 산업화시대 개발 논리와 다른 모델로,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이 혼재된 고밀 도시환경에 적합
  - 바르셀로나와 서울은 인구밀도가 비슷한 편
- 대중교통시설 접근성이 좋고, 노천문화가 발달된 곳에 적용하기 유리

[그림 1] 슈퍼블록 적용 전·후 개념도

1) 블록(Blocks): ‘벽돌’같이 하나의 단위로 구분되는 ‘도시조직의 단위’로, 보통은 도로에 따라 구획
2) 슈퍼블록(Superblocks): 여타의 이유로 ‘블록’들을 병합하여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하는 도시계획 개념

주요 내용

○ 이동성·환경·주민참여 등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수립

- 가이드라인 수립에 참고·반영한 계획은 다음과 같음
  - 유럽연합 대도시 환경기준을 반영한 '바르셀로나 환경협약'(Compromiso de Barcelona por el Clima), '녹지공간과 생물다양성 계획'(Plan del verde y la biodiversidad), '도시이동성계획'(Plan de movilidad urbana)
  - 선택부지의 슈퍼블록 적용 여부 검토기준인 '슈퍼블록 프로그램'(el Programa de supermanzanas), 시민참여 거버넌스 '바르셀로나 행동계획'(Plan de Actuación Municipal de Barcelona)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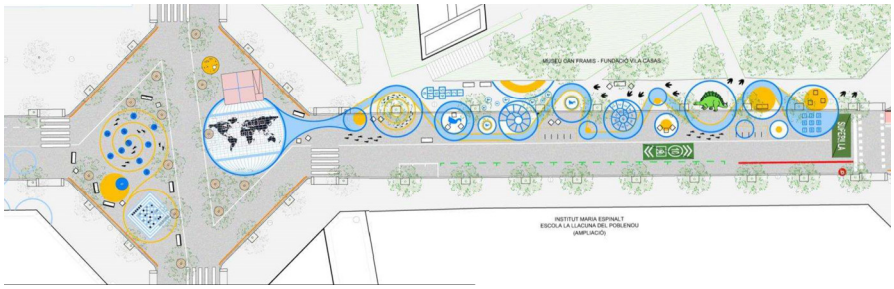
○ 시범지역의 확대

- 2016년 블록의 형태와 모양이 정형화된 '포블레노우' 지역에서 첫 시작
  - 9개 블록을 병합하고, 주민차량을 제외한 다른 차량은 슈퍼블록 외곽으로 우회
  - 블록 내부 진입차량 속도 10㎞/h 제한, 직진 불가, 지하 주차 유도
  - 차량이 차지하는 공간 30% 감소, 여유공간은 공적공간으로 전환
  - 자전거는 직진할 수 있지만, 기존 전용도로는 폐지

[그림 2] 첫 시범적용 지역인 포블레노우의 현장 사진

○ 2019년 현재 8곳 이상에서 시행 중이며, 점차 확대할 예정

- 현재 일부 구(Distrito)는 비정형 블록 형태를 가진 도시조직에도 적용 중
  - 시우타드 베야(Ciutat Vella, 구부러진 길 등 중세 도시조직을 간직한 구도심으로, 서울의 '북촌'이나 '서촌'과 유사)는 슈퍼블록 계획에서 제외
- 도시 꼴은 격자형이지만, 19세기 이전 형성되어 블록 규모가 작은 지역인 그라시아(Gràcia)는 특성을 고려해 블록 병합은 하지 않는 대신, 차량감소와 녹지면적 확대라는 계획의 취지를 반영해 일부 블록을 전면녹지화할 예정



[그림 3] 에익샴플레(Eixample) 지역 슈퍼블럭 내부 어린이놀이터 활용계획

○ 각 구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마련해 슈퍼블록 관련 주민홍보 강화, 민원 상시 접수 중

시사점

○ 슈퍼블록 내부 주민만이 아닌, 인접지역 전반의 이해와 동조 필요

- 슈퍼블록 외부는 우회차량 증가로 소음, 공해 문제 심화

○ 차량접근성 제한에 따른 기존상권 악화 해결방안 필요

- 블록내부 상가에 외부유입 손님 감소
  - 오토바이 정비소 같은 기존상권은 최대 70% 매출감소

Pla de Mobilitat Urbana de Barcelon 2013-2018, Ajuntament de Barcelona

Presentació Consell de Barri de la l'Esquerra de l'Eixample, 2019

Laura Pe ´ (ed), Estimating the health and economic benefits associated with reducing air pollution in the Barcelona metropolitan area, Gaceta Sanitaria Jul-Aug;23(4):287-94, 2008

http://ajuntament.barcelona.cat/superilles/es

https://elpais.com/elpais/2017/07/20/masterdeperiodismo/1500568368_474988.html

https://www.lavanguardia.com/local/barcelona/20160905/4167150975/asi-es-primera-supermanzana-poblenou-barcelona.html

https://www.youtube.com/watch?v=ZORzsubQA_M

김성홍, 공룡블록의 골목길(길모퉁이 건축), 현암사, 2011, pp.97~101.

박 정 수 통신원, urbanmasia@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460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19년 7월 15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출판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담당: 정연우(02-2149-1017, cyw797@si.re.kr)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